
VI

송도





여수시 
변천사

VI. 송도

1. 사회·지리적 배경과 환경

가. 사회·지리적 배경

송도는 장구섬과 함께 여수시 돌산읍에 소속된 부속 도서로 읍의 가장 서쪽인 동경 127° 42', 북위 34° 37'에 위치하며 섬의 동쪽은 돌산도, 서쪽은 제도와 백야도, 남쪽은 화태도에 둘러싸여 있다. 섬은 동서 방향으로 긴 '오이' 모양으로 서쪽에 해발 89m의 최고봉이 있으며 마을은 동서 양쪽의 구릉지 중앙에 위치한다. 섬의 남쪽 장구섬 주변으로 만(灣)이 발달하여 양식어업이 성행한다.

돌산 근내항에서 송도항까지 운항 거리는 2.5km로 신아해운 소속 한려3호 도선이 매일 5차례 운항하는데, 주민 편의를 위해 도선의 운항코스를 순방향과 역방향으로 교차 운행한다. 운행 시간은 순방향 운행 시 15분이 소요되며 역방향으로 운행 시는 1시간이 소요된다. 주민은 농어업을 겸하는데 영세농업 위주이고 어업은 고대구리어업 위주였으나 1990년대 들어 불법으로 금지되면서부터는 굴과 홍합, 농어, 조피볼락 등을 키우는 가두리양식업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예전만 못하다.



송도 섬 전경



송도마을 전경

1) 주요 선착장 간 거리

여수시 돌산읍 군내항에서 약 2.2km, 시간은 15분 소요된다. 최고봉은 89m이며, 섬의 남쪽에 큰 만이 발달해 있다. 부속 도서로는 장구섬이 있다.

2) 인구 현황

한때 주민이 많을 때는 105가구에 700여 명이 살았으나 지금은 70여 가구 121명의 주민이 산다. 2022년 1월 1일 현재 송도에는 주민등록상 59세대, 121명이 살고 있으며, 남자는 53명, 여자는 68명으로 구성돼 있다.

세대수	인구수	남	여
59세대	121명	53명	68명

- 인구 증감 추이

연도	가구 (호)	마을 인구					
		합계	20세 미만	20~40세	41~60세	61~70세	71세 이상
1995	98	509	141	158	126	51	33
2014	84	192	-	-	-	-	-
2016	70	170	-	-	-	-	-
2022	59	121	-	-	-	-	-

3) 토지 현황

계(ha)	전답	임야	기타
65.9	32.2	27.5	6.2

4) 주요 시설현황

· 어촌계 : 이장 강성수 어촌계장 겸임

· 송도 보유 어선 현황

척수	톤별	계	1톤미만	1톤 이상~5톤 미만
	척수		42	5

· 어업권 현황

건, 면적	톤별	합계	마을어업	패류양식	가두리 양식
	건수		5	2	1
면적(ha)		73.7	49.4	14	10.3

나. 지형과 환경

1) 지형

중생대 백악기 중성 화산암류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구성 암질은 백악기 응회암이 넓게 분포하고 암맥들이 남동해안에 분포하고 있다. 동쪽에서 남쪽을 거쳐 서쪽 해안은 해식애와 단구가 형성되어 있고, 남쪽 해안에는 파식대지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응회암의 침식에 의해 형성된 타포니(Tafoni)가 남동 방향의 해안을 따라 형성되어 있으며, 동쪽에서 서쪽에 이르는 모든 해안이 직벽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자연적 파도에 의한 침식보다는 고속 엔진 선박에 의해 발생하는 파도에 의해 해변에 모래가 거의 퇴적되지 못하고 각력으로 형성된 자갈이 해변을 이루고 있다. 토양은 신생대 제4기의 적색토가 넓게 분포하고 있다.



해식애와 해안단구



응회암층



시스택과 토어



남쪽 해안에 나타나는 해식애

2) 지질

돌산도와 여수의 섬들은 1m 내외의 적황 색계의 산성암이 넓게 분포하며, 송도의 지질은 화성암인 불국사화강암(Kbg)을 기반암으로 한다.



남동쪽 해안에 형성된 해식애



남동쪽 해안에 형성된 시스텍



남동쪽 해안에 있는 암맥



응회암의 풍화로 형성된 타포니(Tafoni)



해변에 산재한 토어



응회암의 구상풍화



염분과 해파의 침식에 의한 풍화형

3) 토양

토양은 배수성이 강한 암쇄토 또는 적황색토로 비옥한 편은 아니다.

4) 기후 특성

기후는 난류인 쓰시마 해류의 영향을 받아 전형적인 남해안형(cs)을 보이며 해양성 기후로 경상도 지역과 비교해 온난다우지역에 속하고 온대성, 난대성 식물들이 분포하고 있다.

송도와 돌산읍 지역의 미기후(微氣候) 통계자료가 전무한 탓에 여수 지역의 최근 10년간(2010년~2019년)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여수시의 연평균기온은 2016년 이후 15℃를 넘어섰으며, 또한 월평균 최고기온은 2017년 35.9℃를 기록했다.

여수시의 연평균강수량도 1,493.1mm로서 과거 평균 1,457mm보다 높게 나타났다. 강수량이 가장 많았던 해는 2011년 1,825.1mm였다. 평균 연 강수일수는 98.7일이며, 평균 연 장마 일수는 31.9일, 장마 기간 중 합계 강수량은 337.8mm이다.

풍향은 우리나라 기후에 영향을 끼치는 기단에 의해 북동 계열이 우세하고 지면의 마찰 때문에 풍속은 강한 편으로 연평균풍속은 4.1%이다. 여름철에는 북태평양기단의 영향을 받아 주로 남풍이 많고, 겨울철에는 시베리아기단의 영향으로 북동풍 계열이 우세하여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여수 지역의 연간 맑은 날은 116일, 흐린 날은 95일 정도이고 연 일조시간은 2만 3,000여 시간이다. 서리는 25일 정도 맺히고, 얼음은 76일 정도 언다. 안개는 22일 정도 끼고, 뇌전 일수는 12일 정도이고, 폭풍일수는 12일 정도이다.¹

다. 식생과 생태

1) 식생

송도에 자생하는 수종은 남서쪽에 상록 침엽수인 곰솔군락이 분포되어 있으며 굴피나무, 소사나무, 예덕나무, 사방오리나무 등이 산재하며 특징 종은 없다.

1 참고: 네이버 지식백과 기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사철나무

돈나무

사방오리

후박나무



소사나무



자귀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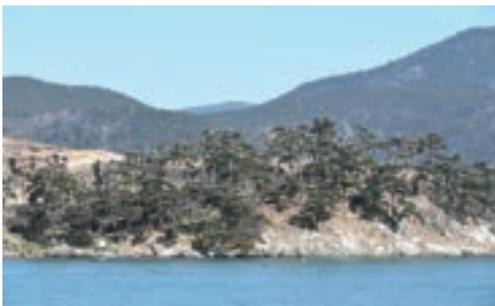


곰솔군락

2) 생태

장구섬 왜가리 집단 서식지

장구섬을 거점으로 하는 왜가리가 20여 년간 20,000여 마리 서식하고 있다. 주변의 양식장을 끼고 있어서 먹이 활동과 서식 환경이 좋아 텃새가 되었다. 왜가리 배설물로 인해 거송(巨松)들이 견디지 못하고 고사하는 실정이다.



장구도



장구도 왜가리

2. 역사와 문화

가. 송도의 연혁

석기 시대의 유물과 움집의 발견으로 오래 전부터 인간의 정착 생활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사기 지리지(승평)」에 의하면 승평군의 영현으로, 백제 때부터 돌산현(突山縣)이라 하였다. 신라 경덕왕 때 여산현(廬山縣)으로 개칭하였으며 고려 때부터 다시 돌산현이 되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세종 30년인 1448년 의정부에서 병조의 첩정에 소나무에 관한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 순천부(順天府)의 송도(松島)가 언급된 것으로 보아 소나무가 많았던 곳으로 지명유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혁	1485년 (성종 16년)	방답진(防踏鎭) 설치되었다가 1895년(고종 32년) 폐지
	1896년	칙령 13호에 의하여 돌산군 설군으로 두남면(斗南面)에 소속
	1914년	돌산군이 통폐합되어 여수군에 소속
	1917년	두남면이 돌산면으로 개칭되면서 편입
	1949년	여천군의 신설로 여천군 돌산면이 됨
	1960년	돌산국민학교 송도분교장 개교
	1979년	송도에서 통학하는 나룻배를 동력선으로 교체하는 대통령하사금 전달식
	1980년	돌산면이 돌산읍으로 승격
	1987년	송도 보건진료소 개소
	1989년	1990년까지 2차에 걸친 송도 조개더미 유적지 신석기시대 유물 발굴조사
	1998년	여수시와 여천군이 통합되면서 여수시 돌산읍이 됨
	2008년	군내리와 해저 수도관 설치. 송도 상수도 식수원 개발착공. 2009년 완공
	2010년 10월	돌산초등학교 송도분교장 폐교
	2014년	송도마을에서 군내항 방향 1,100m 농어촌 도로 개설
	2018년	송도 보건진료소 신축



돌산군 읍지-송도



송도 지명지도

나. 송도지명 유래

우리나라 섬 중에서 '송도' 지명을 쓴 섬들은 상당수 있다. 여수 365개 섬 중에도 경호동 송도, 묘도 송도, 울촌 송도와 돌산 송도까지 하면 4개 섬이 동일 지명을 쓰고 있다.

모든 송도는 솔섬이라고 불렀던 섬들로 '솔'은 소나무가 아니라, '작다', '적다'라는 순우리말로 작은 섬들을 솜섬이라고 했던 것인데 한자로 표기하면서 '솔'의 다른 의미인 소나무를 가져와 '송도(松島)'로 표기한 것이다. 돌산 송도 역시 한문의 소나무 송(松)자를 쓰면서 지명 풀이로 섬에 소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지명이라 하지만 대표 수종이 소나무가 아닌 경우도 있고 소나무와는 전혀 관련 없이 붙여진 지명도 있다.

돌산에 송도는 지금은 소나무가 많지 않지만, 세종 30년인 1448년 의정부에서 병조의 첩정에 의해 여러 섬의 소나무 관리가 잘되는 곳을 정리한 장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시 순천부(順天府)에 예속된 송도(松島)가 소나무가 많은 곳으로 기록되었음이 확인됐고, 당시 선재처로서 봉산으로 관리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송도의 지명 외에도 식도, 솔섬, 밥섬 등으로 불렸다. 또 다른 유래로는 전라남도에서 편찬한 도서지(島嶼誌)에는 돌산읍의 부속 도서로 송도는 우리 고어로 '작다'라는 의미의 솔섬으로도 불린다고 했다.

여천군 지명유래지(1992년)에는 군내마을 남쪽에 있는 섬마을로서 소나무가 많다고 하여 붙여졌으며 현재 소나무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식도, 솔섬, 밥섬으로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다.

돌산 읍지인 「신수여산지」에는 '송도(松島)는 남문의 남쪽에 있는데 나무를 건너 활한바탕 거리(一弓之許)인데 읍내를 공호하여 가장 가깝고도 긴요한 곳이다. 섬의 형태가 외(瓜)와 같으며 길이는 一里요, 넓이는 이백보라 거의가 서맥전(黍麥田)인데, 땅이 기름져 한치의 노는 땅이 없고 군내리 주민이 모두 경작하는 고로 일컬어 식도(食島)라고도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 마을 유래

송도에서 신석기시대 유물과 함께 움집이 발견됨으로써 고대 원시 시대부터 사람이 살아 온 것으로 확인되지만 왜구의 잦은 침략으로 한동안 섬이 비워졌다. 200여 년

전 섬에 들어온 진주 강씨가 입도조(入島祖)가 됐고, 이어 김, 박, 고 씨 순으로 입도해 마을이 형성됐다고 한다.

동구지 : 섬의 동쪽 끝 구지.

동구지몰랑 : 동구지로 넘어가는 고개.

장고섬(소송도) : 송도마을 남쪽에 있는 장구 모양의 왜가리 번식지이다.

나룻구지 : 벽송정 맞은편의 송도 나룻배가 닿는 곳

목 송도와 장구섬 사이의 땅. 물이 빠지면 섬과 섬 사이에 길이 생긴.

목몰랑 : 나룻구지에서 장구섬 쪽으로 넘어가는 고개.

물써끝 : 송도와 장구섬 목의 동쪽 바로 옆에 있는 물살이 센 끝.

블락 바구 : 섬의 북쪽 해안의 '동구지 몰랑' 근처의 블락이 잘 무는 바위

수리봉 : 큰 산의 봉우리로, 모양이 수리같이 생겨서 붙여진 이름

숫 구지 : 섬의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는 구지의 뜻.

숫구지몰랑 : 숫구지로 넘어가는 고개.

웃 머리 : 마을 북쪽에 있는 바닷가와 그 주위의 산으로 섬의 머리에 해당한다.

라. 문화유적과 유물

1) 송도의 신석기 유물 조개더미

① 발굴 경위

송도의 조개더미 유적은 1986년 조현종의 「여천돌산도 지표조사보고서」에서 덧무늬 토기의 존재가 보고됨으로서 학계에 알려지게 됐다. 중앙박물관 고고부와 광주박물관에 의해 정밀 지표조사가 시행되어 어느 정도 윤곽



송도 신석기 유물 조개더미 발굴지

이 파악됐다. 1차 조사는 1989년 11월에 20일간 진행됐으며, 2차 발굴조사는 1990년 조사되어 신석기시대 유적에 대한 정식 학술발굴과 함께 보고서로 작성됐다.

② 발굴장소와 지질, 지형, 환경

송도의 조개더미 유적은 2개 장소에서 출토됐다. 군내리 1365번지의 장구섬 건너 편에서는 굵은 금무늬, 짧은 빗금무늬 등과 석기류가 발견됐다. 다른 한 개는 군내항 방향에서 송도마을로 가는 개설된 농로의 오른쪽에 위치하는 돌산읍 군내리 밭 823, 824

번지 일대에서 많은 유물이 발견됐다. 하지만 지금은 경작지가 됐다. 유적 주변은 표고 89.1m의 산이 있으며 산을 축으로 하여 휘어져 있다.

유적의 발굴범위는 약 35m, 동서로 약 30m 크기이나 유적의 중심부가 계단 경작에 의해 깎이면서 저지대 해안으로 이동 매립됐다. 유적지 주변의 지질은 중생대 백악기의 화성암인 불국사화강암(Kbg)을 기반암으로, 인근지역에 중성화산암류가 관입돼 넓게 분포되어 있다. 화산암류는 광물립이 매우 작은 결정질 또는 유리질로서 광물 조성에 따라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등으로 구분되며 타격에 의해 예리한 날을 만들 수 있는 석재이다. 토양은 배수성이 강한 암쇄토 또는 적황색토이며 위쪽으로 흐르는 자연수와 인근의 돌샘은 당시 주민들에게 양질의 생활용수로 이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의 기후는 지리적 지역구분에 의한 남해안 지역형이며 해안의 영향을 받아 연강수량 1,300~1,500mm, 연평균기온 13~14℃, 1월 최저기온 2℃가량으로 기온의 연교차도 비교적 작은 편이다.

③ 출토유물

조개더미와 관련해 출토된 유물은 토기류가 주종을 이루며 펜석기 및 부분적으로 간석기 층의 석기류와 짐승 뼈, 패각류 등이다. 토기류는 덧무늬토기와 빗살무늬토기 등 종류가 다양하며 석기류도 비교적 독특한 형태를 보인다.

가장 오래된 유물은 덧무늬 계의 기하학적 무늬와 가는 금무늬가 결합한 덧무늬토기가 출토됐고, 이밖에 무문양토기와 흑요석, 돌날, 사슴뿔을 포함한 짐승 뼈가 출토됐다. 출토된 석기류에서는 곰배깡이, 돌삽 등 농기구로 보이는 연모의 출연과 이음돌낚시 등도 발견되어 고기잡이와 함께 이루어진 정착 농경 생활의 일면을 반영하는 자료로 모두 신석기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다.

④ 송도 조개더미 발굴조사 의의

조개더미 위에 두껍게 진흙으로 다져진 집터 일부가 드러나면서 남부지방 최초의 집터로 보이는 유구의 발견과 유물을 통해서 본 유적의 특징을 알 수 있는 토기류, 석기류, 뼈연모, 꾸미개, 짐승 뼈, 패각 등이 출토됐다. 이 가운데서 유적의 성격을 특정할 수 있는 유물은 단연 토기류였다. 토기는 바리, 보시기, 단지 등 형태는 단순하나 덧무늬 구성이 다양한 유물이 나왔다.

특히 완형으로 복원된 덧무늬 토기는 크기나 형태, 기형과 무늬 구성에 있어서는 이제껏 알려진 예와는 다른 토기로 송도 특유의 형식이어서 새로운 자료로 이 지역의 신석기시대 문화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인정된 점이라 할 수 있다.

이음낚시와 흑요석은 신석기 문화의 교류 문제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로 시료에 의해 얻어진 방사성 탄소연대와 흑요석 성분의 분석 결과는 이 지역이 갖는 한반도 신석기시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정표를 마련했다. 유적의 연대 문제는 덧무늬토기를 지표로 하여 BC4500년을 전후한 신석기 전기중엽에서 후엽에 걸치는 유적임이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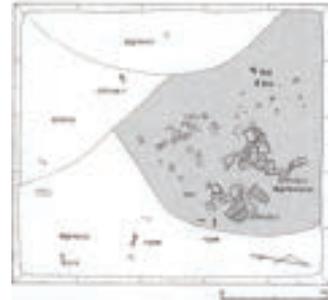
순천 고인돌공원에 복원된 송도움집



순천 고인돌공원에 복원된 송도움집 내부



송도에서 출토된 덧무늬토기



유물출토상태

3. 섬 생활의 변천

가. 돌산면 군내리서 나룻배 동력화 하사금 전달식

‘돌산면 군내리서 나룻배 동력화 대통령하사금 전달 600여 섬 주민 통학생 위해’

1979년 7월 5일 군내리로 300m 뱃길 통학을 하는 70여 명의 초·중학생과 600여 명의 섬 주민 교통편의를 위해 기존 나룻배를 동력선으로 전환하도록 대통령하사금

이 내려졌다. 이날 진수식에서 문화방송 경향신문 서규석 상무는 이 마을 지도자 고효주 씨에게 하사금을 전달했다.



마을에서 운영했던 송도 도선



현재의 도선

나. 송도마을 식수 해결

2009년 송도마을에 사업비 20억 원이 투입돼 완공된 ‘도서 식수원 개발사업’으로 관련 시설이 조성됐다. 당시 98세대에 280여 명이 거주했던 송도는 이전까지 지하수와 간이상수도를 통해 생활용수를 확보했으나, 식수원 고갈과 염분 유입으로 심각한 급수난을 겪는 실정이었다. 돌산을 군내리에서 기존 상수도관을 해저로 연결하는 식수원 공사로, 해저 관로 0.5km, 육상 관로 3.6km를 포함해 배수지 1곳이 설치됐다.

다. 송도의 생업



주낙 미끼 채우기 부업



주낙 미끼 채우기

송도 할머니들의 부업

주낙은 11월 말부터 이듬해 3월 초까지가 시즌이다. 낙지를 잡는 방법에는 주낙과 통발이, 갯벌에서 잡는 3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주낙으로 잡는 어부들은 일손이 부족하여 주낙 채비를 하려면 송도를 찾는다. 10여 년째 이곳 할머니들의 부업으로 자리 잡았다.

날마다 일이 있는 것은 아니며, 바다 물때에 따라서 작업을 하는데 ‘조금’ 전후로 일감이 들어온다. 작업 단위는 ‘통’으로 보통 한 통은 낚시가 150개에서 180개 정도 달려 있고 낚시에 고무줄로 수입한 반장계를 채워 고정한다.

미끼인 반장계는 중국에서 수입한다. 작업이 숙달된 할머니는 보통 1시간에 한 통을 처리하며 품으로 5,000원을 받는다. 인건비가 저렴한 탓에 큰 돈벌이는 되진 않으나 소일거리 없는 어촌에서 남녀노소 구분 없이 할 수 있는 부업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고령화로 인해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유명무실한 상황에 놓여 있다.

라. 주민들의 생애사

지금은 소형기선 저인망어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여수에서는 송도가 가장 먼저 도입해 활성화하면서 부촌이 되었다. 하지만 고대구리어업이 금지되면서 설 자리를 잃었고, 현재는 대부분 가두리양식업으로 전환되었다.



빈집을 수리하여 만든 할머니 놀이터



놀이터를 만든 할머니들



상수도 착공 기념사진



자매결연 기념사진



할아버지 카페



송도 선착장

마. 주택과 선박



1970년대 주택



송도 소형어선

바. 돌산 송도 주민 인터뷰

1) 강성수 씨

현재 주민은 75가구에 전체인구는 159명인데 실거주 주민은 110명 정도 됩니다. 최고 연장자는 101세 할머니가 살고 계시고 이 마을 평균 연령은 70세 정도 됩니다.

제 기억에는 여수 근해에서는 우리 송도가 가장 먼저 고대구리 어업(소형 기선 저인망 어선)을 받아들여서 부를 이루어 주변 섬 중에서는 가장 부촌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민들은 돈을 벌면 모두들 돌산 군내리와 여수 등지에 집을 한두 채씩은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2005년 무렵부터 여수에만 700여 척 되던 고대구리 어업이 어장을 황폐화한다고 금지되면서 활기를 잃었고 점차 소득이 줄어들자 젊은 사람들은 모두 외지로 빠져나가면서 나이 든 노인네들만 여기서 살고 있지요.

어업은 장어, 낙지, 문어 등을 주로 잡았으며 얼마 전까지 주낙을 가리는 것을 소일거리로 삼아 나이 든 어르신들이 용돈으로 벌었는데 일부 주민들끼리 분란이 있어서 마을에서 금지해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반농, 반어(문어잡이)를 하고 있는데 멧돼지하고 노루가 너무 많아서 농작물을 짓기가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또한, 아프신 어르신들은 자식들이 있는 시내로 나가 치료를 받고 다시 송도로 오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당제는 50년 전에는 당제를 모셨으나 인구감소와 교인들의 증가로 당제를 모시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송도의 주민 숙원사업은 인근 화태도와 같이 연륙교를 건설하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2) 김대용 씨

저는 가두리 양식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룻값이 너무 비싸고, 인건비 지출도 점차 높아지고 있어 고기를 키워 출하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식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젊은이들은 동네에서 거의 다 나가서 살고 외국인 근로자들은 코로나19 때 나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어서 제가 직접 양식업을 하지만 나이도 많고 해서 매우 힘듭니다.



송도에 들어오는 외국인 종업원들은 주로 인도네시아·스리랑카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에게 주는 임금은 평균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 사룻값, 재료비 등 너무 올라서 양식장도 이제는 접어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어단지 어업은 우리 송도가 원 시조 격이며, 인근 어부들이 송도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폐그물이나 통발을 바다에 버려서 바다 오염이 매우 심각합니다.

예전 요즘 철에는 송도에서 독새우가 많이 잡히는 시기인데 전혀 잡히지 않습니다. 고기도 안 잡히고 양식업도 힘들어서 섬에 살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예전에는 송도와 군내리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나루터가 있어 학생들이나 마을 주민들은 '나룻고지'를 사용하였으며 지금은 마을 앞에 선착장이 있어 나룻고지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을 이름은 현재 선착장이 있는 곳을 동편마을이라 부르고 뒷마을 서편마을이라 부르고 있으며 동편마을은 물이 나오지 않아서 우물이 거의 없었으며 서편마을은 물이 나와 우물이 있는데 건기가 있습니다. 서편마을은 '똥밭'이라고도 합니다.



서편마을 옆에는 거북이 머리 바위가 있는데 묘가 있는데 묘 주인은 예전에 마을에 살았던 사람이고 부산 쪽으로 이사를 하였는데 예전에는 후손들이 송도에 와서 벌초도 하고 시제도 모셨는데 몇 년 전부터 방치하고 있어서 마을을 위해 이장을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저의 바람은 다리 연결과 송도에 들레길을 만들어서 관광객도 와서 주민소득을 올려 주었으면 합니다.

4. 송도의 민속 문화

가. 당제

50년 전까지는 당제를 봉행했으나, 지금은 당제를 지내지 않고 있다.



과거 당산나무 2그루

나. 복지시설- 교육, 보건의료

1) 돌산초등학교 송도분교장(폐교)

연혁	1960년 5월 21일	돌산국민학교 송도분교장으로 개교했다.
	1996년 3월 1일	돌산초등학교 송도분교장으로 학교 이름이 바뀌어 운영되고 있다.
	2008년	총 2학급에 6명 학생이 다녔다. 교사 2명, 기능직 1명 등 총 3명이 근무했다.
	2010년 10월	폐교되었다.

① 교가

태백의 산줄기를 이어서 솟은 / 천왕산 기슭이에 해당화 동산
빛나는 전통 이은 배움의 터에 / 스승의 품속에서 자라는 우리
정답다 아름답다 평화의 돌산 / 사랑의 보금자리 우리 돌산교

② 교목 : 소나무

③ 교화 : 동백



돌산초등학교 송도분교(폐교 전 모습)

2) 돌산읍 송도보건진료소

1956년 보건소법 제정돼 각시군마다 보건소를 두었고 1967년에 돌산읍에 보건지소가 설치돼 촉탁 의사가 배치됐다. 1980년에는 농어촌 보건의료로 위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1990년부터 공중보건 의사가 돌산읍 보건지소장으로 근무하며, 낙도 주민들의 보건医疗을 위해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돌산읍의 경우 보건지소에 의사 2명과 간호사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송도에는 1984년 보건진료소가 설치돼 간호사 1명이 상주하고 있다.

- 병원명 : 여수시 송도보건진료소
- 대표전화 : 061-666-9363
- 병원 분류 : 보건소
- 진료과목 : 가정의학과
-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송도길 51-19



송도 보건진료소

다. 교회

교회명 : 송도교회 (061-665-4670)

주 소 : 전남 여수시 돌산읍 송도길 35-6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1410-1번지)

설립일자 : 1970년 설립



송도교회

5. 부속섬(장구섬)

송도섬의 남쪽 중앙에 위치한 섬으로 무인도이다. 1천마리의 왜가리가 서식한다.



장구섬